

# 예금 우대금리 내리고 대출 가산금리 올리고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의 우대금리를 무더기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장금리의 하락보다도 예금금리를 더 낮췄다는 뜻이다. 반면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금리를 받아냈다. 은행들은 시장금리에 연동해 예금과 대출 금리를 정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대금리 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은행들 무더기로 축소=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대표 예금상품인 ‘국민수퍼정기예금’(1년 기준)의 지난해 말 기본금리는 연 2.3%, 여기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한 최고 금리는 연 2.6%였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우대금리’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 상품의 현재 기본금리는 연 2.1%, 최고 금리는 연 2.18%로, 그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국민은행이 0.3%포인트였던 우대금리를 0.08%포인트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객이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이 느끼는 ‘채광 금리’는 기본금리보다 훨씬 크게 떨어진 셈이다.

국민은행은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대금리를 축소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예금 규모가 63조원으로 국내 최대 예금인 신한은행 ‘S드림정기예금’은 지난해 말 기본금리가 연 2.5%, 최고 금리는 연 2.7%였다. 이 상품의 현재 기본금리는 연 2.1%이며, 최고 금리는 연 2.15%에 불과하다.

외환은행도 대표예금인 ‘yes큰기쁨예금’의 우대금리

## 시중은행 암채 장삿속

## 고객보다 수익 극대화

를 지난해 말 0.24%포인트에서 지금은 0.1%포인트로 줄여 지금은 기본금리와 최고 금리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 상품의 최고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65%에서 지금은 연 2.25%로 떨어졌다.

SC은행의 대표예금 ‘퍼스트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65%에서 현재 연 2.15%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대금리 또한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축소됐다.

◇대출 가산금리는 ‘인상’ 러시...“서민금융 말도 꺼내지 말아야”=문제는 은행들이 예금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출 가산금리마저 인상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예금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보다도 더 내려가도록 만들면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더 내려가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지난해 말 금리는 최저 연 3.3%였다. 그런데 현재 금리는 연 3.27%로 고작 0.0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7월 말에는 연 3.57%로 되려 오르기까지 했다.

이유는 이 은행이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출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씩 올렸기 때문이다.

기본금리인 코픽스는 올해 들어 0.39%포인트 떨어졌

지만, 가산금리를 0.4%포인트나 올리니 대출금리가 내려갈 턱이 없다.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신규 코픽스 연동) 금리는 올해 들어 더 상승했다. 지난해 말 대출금리는 최저 연 3.18%였지만, 현재 금리는 연 3.48%로 무려 0.3%포인트나 올라갔다.

신한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해 말 최저 연 3.2%에서 지금은 연 3.17%로 고작 0.03%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은행 측은 작년 연말 금리 할인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올해 1월 말 대출금리인 연 3.46%를 적용해도 금리 하락폭은 0.29%포인트에 그친다. 이는 코픽스 하락폭 0.39%포인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은행권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의 금리 하락폭은 0.38%포인트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락폭은 0.24%포인트에 불과했다.

결국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은행들의 자의적인 금리 조정과 금융당국의 잘못된 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 등이 맞물려, 저금리 추세 속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금리 혜택만 앗아간 셈이다.

금융소비자지원 조남희 대표는 “은행들은 평소 ‘시장금리에 연동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정한다’고 하는데 예금 우대금리는 마음대로 낮추고 대출 가산금리는 올리면서 어떻게 ‘시장금리 연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며 “이런 행태를 이어가면서 서민금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정부 경기부양 정책 행보 빨라져

## 시장 안정감 회복 ... 반등 가능성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겨우 지켰다. 유럽의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경기 우려가 증가하면서 한국인의 매도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연간 상승폭을 반납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증시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본격적인 하반기준비에 전진했지만 3분기 이익 추정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월말 미국의 FOMC회의를 앞두고 있어 관망심리는 더욱 자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의 글로벌 경기 둔화보다는 지속적인 약세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시장은 단순히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9월FOMC 회의록과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완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을 포함한 유럽, 중국, 일본등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위축을 시장은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로존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둔화 우려가 경기 침체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ECB, 통화확대정책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경기부양책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또한 후강통 실시 이후 타국가의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지금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내부적으로도 금융위의 금리인하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행보가 더욱 빨라질 개연성도 있다. 기술적지표들도 2012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하는 등 과매도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형펀드도 15거래일 연속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증시 내 수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점차 안정감을 찾아갈 것이다. 아직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은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어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부지점장〉

# 코스피 급락에 ... 30개 상장사 주가 ‘반토막’

##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주도 포함

## 주식시장 주도 화학·정유주도 고전 면치 못해

코스피가 1,900선까지 주저앉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올해 들어 약 30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주가가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의 증가 대비 지난 17일 증가가 40% 이상 급락한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모두 28개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증자 및 감자 등으로 상장주식 수가 변했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올해 들어 주가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은 넥솔론이다. 작년 말 856원이었던 넥솔론의 주가는 지난 17일 199원에 거래를 마쳐 이 기간의 하락폭이 76.8%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생산업체인 넥솔론은 지난 8월부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이 기간에 중국원자자원(-70.4%), 동부건설(-63.7%), 이필름(-57.5%)도 주가가 반 토막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주가가 반 토막 난 종목 중에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도 여럿 포함됐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전 세계 경기회복세를 타고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선주의 주가는 올해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작년 말 25만7000원에서 최근 10만9500원에서 57.4% 떨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도 이 기간에 3만5000원에서 1만6900원으로 50% 넘게 하락했다.

한때 자동차 업종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해 ‘차

화장’이란 별칭까지 얻었던 화학·정유주도 올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화학주도 분류되는 카프로(-55.9%), 한화케미칼(-46.6%), 롯데케미칼(-40.3%)의 주가는 작년 말 대비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유주도 국제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주가가 떨어졌다. 에스오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7만4000원에서 3만9450원으로 46.7%, SK이노베이션은 14만1500원에서 7만8600원으로 44.5% 추락했다.

그밖에 대형주 가운데 OCI(-52.9%), 엔씨소프트(-46.7%), 삼성전기(-44.3%)의 주가도 이 기간에 40~50%대 하락률을 보이며 주가가 반 토막 났다.

작년 연말 증시 전문가 상당수는 올해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되며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최고 2,300까지 오른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낙관론을 제시했던 지난해 연말 증권가의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18.17포인트(0.95%) 하락한 1900선 아슬아슬  
1900.66으로 장을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빌딩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오후 한 때 1,896.54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장중 1900선 붐비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7282	3	여수시 소라면 현리리 406 340㎡	전	6,460,000 6,4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7343	1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433 314㎡ [매각제 외권태이비박소속제]	대	4,726,200 4,726,200	주택포함매각
	3	동소 785-4 496㎡	대	4,696,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4	동소 786-1 678㎡	대	4,696,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5	동소 810-2 119㎡ [현황일부요지]	전	3,582,820	공유차우선대수권 보유(1106원부)
2014타경 8117	2	동소 196 1945㎡	전	6,703,200	농지취득자격증명
	3	동소 268 126㎡ [현황주거지]	대	1,638,000	주택포함매각
2014타경 8339	1	보성군 화정면 불산리 967-1 278㎡	대	11,366,4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968-1 327㎡ [현황전]	대	11,366,4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8445	1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859 3798㎡	대	110,14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고흥군 점양면 신안리 산165 32033㎡	임야	21,141,780	
2014타경 9042	1	순천시 왕당면 682 251㎡	대	44,929,000	매각조건일부포함
	2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46-4 1790㎡	전	9,30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9219	3	동소 산139 908㎡	임야	2,270,000	
	4	공양시 공양읍 덕례리 산133-9 811㎡	임야	6,001,400	
2014타경 9370	1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481 2469㎡	전	185,1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고흥군 돌양면 불명리 177 157㎡	대	1,727,000	매각조건일부포함
2014타경 10202	1	동소 224 298㎡	대	2,27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978 831㎡	대	5,574,900	일괄매각, 목축3농
	3	동소 978-1 280㎡	대	5,574,900	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산121-2 1190㎡	임야	3,570,000	
2014타경 10479	1	고흥군 돌양면 황소리 26 430㎡	대	9,019,200	일괄매각, 목축14
	2	동소 27 106㎡	대	9,019,200	매각조건일부포함
2014타경 10523	1	공양시 전월면 차사리 155-1 172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조건일부포함]	대	63,862,000	2014타경 10226(중 63,862,000원)
	2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8,254,400	공유차우선대수권 보유, 동사채환
2014타경 403	1	공양시 공양읍조남리 산64 4339㎡ [연고미상의료기및경미경제외미상보유수기소재]	임야	801,771,500원	
	2	여수시 덕송리 1666-2 260㎡	전	92,560,000원	
2014타경 4580	3	동소 1670 314㎡ [현황전]	대	104,876,000	2014타경9684(병 2,009,400원)
	4	고흥군 점양면 감산리 547 264㎡	대	60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5255	3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405 602㎡	전	1,395,000	
	4	동소 1407-6 1395㎡	임야	1,395,000	
	5	동소 산342-7 5157㎡	임야	5,002,290	
2014타경 5910	1	보성군 화정면 등물리 208-5 416㎡ [현황요지]	전	4,201,6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여수시 소라면현리리871 493㎡ [현황농경지]	임야	7,037,600	일괄매각, 목축1농
2014타경 7282	1	여수시 덕송리 1666-2 260㎡ [연고미상의료기및경미경제외미상보유수기소재]	임야	14,434,2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673 1458㎡ [현황농경지]	전	14,434,2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7282	3	여수시 소라면 현리리 406 340㎡	전	6,460,000 6,4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1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433 314㎡ [매각제 외권태이비박소속제]	대	4,726,200 4,726,200	주택포함매각
2014타경 7343	3	동소 785-4 496㎡	대	4,696,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4	동소 786-1 678㎡	대	4,696,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5	동소 810-2 119㎡ [현황일부요지]	전	3,582,820	공유차우선대수권 보유(1106원부)
	6	동소 810-3 36㎡	전	230,4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8117	2	동소 196 1945㎡	전	5,3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	동소 268 126㎡ [현황주거지]	대	1,638,000	주택포함매각
2014타경 8339	1	보성군 화정면 불산리 967-1 278㎡	대	6,703,2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968-1 327㎡ [현황전]	대	6,703,2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8445	1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859 3798㎡	대	11,366,4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고흥군 점양면 신안리 산165 32033㎡	임야	11,366,400	매각조건일부포함
2014타경 9042	1	순천시 왕당면 682 251㎡	대	44,929,000	매각조건일부포함
	2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46-4 1790㎡	전	9,30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9219	3	동소 산139 908㎡	임야	2,270,000	
	4	공양시 공양읍 덕례리 산133-9 811㎡	임야	6,001,400	
2014타경 9370	1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481 2469㎡	전	185,1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고흥군 돌양면 불명리 177 157㎡	대	1,727,000	매각조건일부포함
2014타경 10202	1	동소 224 298㎡	대	2,27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978 831㎡	대	5,574,900	일괄매각, 목축3농
	3	동소 978-1 280㎡	대	5,574,900	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산121-2 1190㎡	임야	3,570,000	
2014타경 10479	1	고흥군 돌양면 황소리 26 430㎡	대	9,019,200	일괄매각, 목축14
	2	동소 27 106㎡	대	9,019,200	매각조건일부포함
2014타경 10523	1	공양시 전월면 차사리 155-1 172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조건일부포함]	대	63,862,000	2014타경 10226(중 63,862,000원)
	2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8,254,400	공유차우선대수권 보유, 동사채환
2013타경 7308	1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130,452,300	일괄매각, 목축3,8
	2	공양시 공양읍조남리 산64 4339㎡ [연고미상의료기및경미경제외미상보유수기소재]	임야	130,452,300	매각조건일부포함, 목축6,9현황일부포함
2013타경 7308	1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130,452,300	일괄매각, 목축3,8
	2	공양시 전월면 차사리 155-1 172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조건일부포함]	대	63,862,000	2014타경 10226(중 63,862,000원)
2013타경 7308	1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130,452,300	일괄매각, 목축3,8
	2	공양시 전월면 차사리 155-1 172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조건일부포함]	대	63,862,000	2014타경 10226(중 63,862,000원)
2013타경 7308	1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130,452,300	일괄매각, 목축3,8
	2	공양시 전월면 차사리 155-1 172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조건일부포함]	대	63,862,000	2014타경 10226(중 63,862,000원)
2013타경 7308	1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130,452,300	일괄매각, 목축3,8
	2	공양시 전월면 차사리 155-1 172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조건일부포함]	대	63,862,000	2014타경 10226(중 63,862,000원)
2013타경 7308	1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130,452,300	일괄매각, 목축3,8
	2	공양시 전월면 차사리 155-1 172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조건일부포함]	대	63,862,000	2014타경 10226(중 63,862,000원)
2013타경 7308	1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130,452,300	일괄매각, 목축3,8
	2	공양시 전월면 차사리 155-1 172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조건일부포함]	대	63,862,000	2014타경 10226(중 63,862,000원)
2013타경 7308	1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130,452,300	일괄매각, 목축3,8
	2	공양시 전월면 차사리 155-1 172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조건일부포함]	대	63,862,000	2014타경 10226(중 63,862,000원)
2013타경 7308	1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130,452,300	일괄매각, 목축3,8
	2	공양시 전월면 차사리 155-1 172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조건일부포함]	대	63,862,000	2014타경 10226(중 63,862,000원)
2013타경 7308	1	고흥군 도덕면 가마리 산114-4 2948㎡ [경미경, 김부원지분전부][현황전]	임야	130,452,300	일괄매각, 목축3,8